

야 “검찰, 처음부터 끝까지 불공정·망신주기 갑질 수사 일관”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수사 담당자 언급…‘기획수사’ 지적
검찰, 비표 소지 언론사 외 출입·촬영 제한 통보…‘가세연’은 허용?
野 “검찰, 지연작전 통해 수사 대상자 망신주기 수사 행태 일상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시간이 넘는 장시간 검찰 수사를 받은 가운데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를 “정적 제거용 조작수사”라고 규정하며 반발했다.

위원회는 29일 입장문을 내고 “이 대표가 어제(28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처음부터 끝까지 불공정·망신주기 갑질 수사로 일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검찰은 이 대표와 함께 온 천준호 민주당 비서실장과 박성준 대변인이 검찰 청사 앞 포토라인으로 가는 것을 ‘상부 지참’이라며 막아섰고, 여러 차례 항의를 통해 겨우 이동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비표를 받은 언론사 외 촬영에 제한을 뒀으나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의 촬영은 자유롭게 이뤄졌으며 “박성환 공보담당관은 현직 국회의원은 경내 출입을 막고 ‘가세연’의 출입을 허용한 경위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묻는다. 민주당 의원들은 막아서고 제한된 언론만 취재를 허용하면서 일부 유튜브에게는 활짝 문을 열어주는 것이 ‘상부 지참’인가”라고 했다.

또한 12시간이 넘는 장시간 조사가 이뤄진 것에 대해 “했던 질문 또 하고, 자료를 낭독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런 지연수사로 이 대표 변호인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 조사를 마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측이 검찰에 항의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검찰의 고질병인 ‘공무상 비밀누설’

도 반복됐다”며 “뉴스는 28일 기사에서 검찰 관계자의 말을 빌려 구체적 증거제시도 없이 이 대표를 범죄자로 낙인찍는 ‘검찰발’ 피의사실

공표 행위이자 공무상 비밀누설(을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고형곤 제4차장검사, 반부패수사1부 엄희준 부장검사, 정일권 부부장검사, 반부패수사3부 강백신 부장검사, 남대주 부부장검사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수사 담당자들을 향해 “검찰이 기획한 일정보다 이 대표를 하루 더 포토라인에 세워 범죄자로 낙인찍기 위해 시간 끌기로 일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검찰은 지연작전을 통해 수사대상자를 망신 주기하는 수사 행태가 얼마나 일상화됐으면 아무런 문제의식조차 느끼지 못하는 모습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아제 검찰조사를 통해 다시 한 번 검찰이 ‘수사’ 아닌 정치를 하고 있음이 명백해졌다”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검찰의 정적제거용 조작 수사에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김한별 기자

여 “李 가로막는 건 다름 아닌 본인이 지은 죄”

여 “온가족이 사법 리스크… 모든 것 정쟁으로 끌고 갈 심산”
김·안, 여 당권주자도 李 비판 가세… “민주화 투사인양 호도”



지난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찰조사를 두고 ‘정적제거용 조작수사’로 규정하자 “정말 가지가지 하신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세상이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모두 ‘망신주기 정치쇼’, ‘정치보복’이고, ‘독재’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원내대변인은 “만약 검찰이 기소를 목

표로 조작을 시도했다면 이 대표는 당장 김 사실을 취재나 기자회견을 열고 백서라도 발간했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차라리 더 이상 출석하고 싶지 않고 솔직히 고백하라”며 “지금 이 대표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검찰도, 국민의힘도 아닌 ‘본인이 지은 죄’이다”라고 강조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이 대표를 향해 “공천권을 쥔 대표에게 눈도

장 한 번 찍어보려 ‘혼날 각오를 하고 나왔다’는 정신머리 없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박 수석대변인은 “억울한 점이 있다면 당대표·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의연하게 대응하면 될 일”이라며 “온 가족이 사법 리스크에 얽여 있는데 이 대표는 이 모든 사안을 다 정쟁으로 끌고 갈 심산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제1야당인 민주당은 끝없는 내용과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며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야당 대표 한 사람으로 인해 국가가 또 제 역할을 못 할 것 같아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와 관련해 “어떤 권력도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계속 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거짓말 대행진을 통해 아무리 국민을 속이려 하더라도 진실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범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자랑스러워하기까지 한다”고 이 대표를 겨냥한 발언을 내놨다.

안 의원은 “마치 군사 독재에 맞선 민주화 운동마냥 검찰 독재에 맞선 민주화 투사인양 호도하고 있다. 대선 불복을 넘어 사실상 사법 불복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한별 기자

‘김건희 추가조작 의혹’ 고발당한 김의겸…“두손 들어 환영”

김 “김건희 조사할 수 있는 좋은 기회”
대통령실 “거짓 브리핑 유감…책임져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9일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의 ‘추가 추가조작 의혹’을 공개한 자신을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경찰에 고발키로 한 것에 “두 손 들어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인 저 김의겸을 고발한다고 한다. 제가 조작한 추가 조작 의혹 때문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는 도이치모터스에 이어 또 다른 작전주 ‘우리기술’까지도 김건희 여사가 손댔을 가능성을 추가로 제시했다”며 “흐름을 보면 도이치모터스와 우리기술을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실이 저를 고발해 처벌하려면 도이치모터스, 우리기술과 관련한 김 여사의 역할이 우선적으로 규명돼야 할 것”이라며 “김 여사를 제대로 조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반겼다.

김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은 경찰에 저를 고발하겠다고 한다.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을 것이고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하들이 득실거린다. 공정성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래서 권고 드린다”며 “윤 대통령 부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부가 진짜 억울하다면 ‘김건희 특검’을 받으십시오”라며 “제 주장이 잘못된 것으로 드러난다면 그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 추가 추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 대변인을 이번 주 초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지난 27일 논평에서 “법정에서, 그것도 감사의 입을 통해 김 여사가 우리기술 20만 주를 매도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며 추가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대통령실은 김 대변인의 주장에 즉시 언론 공지를 내고 “다른 사람의 재판 과정에서 나온 내용 중 일부를 마음대로 해석해 ‘거짓 브리핑’을 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김 대변인을 겨냥해 “공당의 대변인으로서 ‘허위사실 유포’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한별 기자

즐거운 청소년활동으로 청소년들을 꿈꾸게 하는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을 꿈꾸게 하는 즐거운 청소년활동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등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활동을
우리 지역의 청소년 수련시설 및 단체에서 경험해 보세요!

안전하고 건강하게 재미있는 청소년활동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와 ‘청소년수련활동신고제’는 청소년의 안전한 활동을 위한 필수 사항입니다.
우리아가 참여하는 활동, 인증을 받은 프로그램인지 신고를 한 활동인지 꼭 확인하세요!



경기도 Youth Services Center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55(송죽동) 2층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TEL 031)232-9383~5 FAX 031)232-9388 홈페이지 www.gysc.or.kr

SNS www.facebook.com/kgysc
블로그 blog.naver.com/kgyvc

